

# 메이지유신의 정치적 · 사상적 기반들

## 근대로의 변혁에서의 유학의 역할

20200422 이수빈

일본에서는 유학이 확산되면서 훗날 메이지유신을 성공시키게 된다. 이는 단순히 유신의 성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세에서 근대로의 변혁을 의미한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에 대해 논하려 한다.

먼저, 유학은 정치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에도막부는 지배 정당화를 위해 유학을 이용했는데, 그 중 하나가 ‘대정 위임론’이다. 이는 ‘장군은 천황으로부터 대정, 즉 국정을 위임받아 그 직임으로 일본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뜻이다.<sup>1)</sup> 따라서 장군은 직임을 수행하는 것이 조정에 대한 최대의 존경이라는 논리로 막부의 지배권을 정당화했으며, 조정은 대정을 위임한 이상 장군의 직임에 개입이 불가하다는 논리로 천황의 정치적 실권을 부정했다. 그러나 에도막부 후기에 이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반론이 제기된다.

첫째로는 대정위임론의 전제에 초점을 맞춘다. 대정위임론이 성립하려면, 막부의 권위는 원래 천황이 모두 가지고 있던 것이며 막부는 그것을 위임받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논리가 전제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천황이 막부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정위임론은 오히려 막부의 종결과 메이지유신의 천황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둘째로는 19세기 당시 국내외 문제들이 다수 발생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 특히 에도막부는 오랫동안 쇄국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19세기 중반 거세진 서구 제국주의의 물결로 인해 일본은 결국 미국,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프랑스 등 여러 서양 국가들과 굴욕적인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sup>2)</sup> 이에 대해 당시 국가통치의 실권이 있던 막부에 그 모든 책임이 돌아갔다. 이러한 국내외 혼란을 수습하기 어려워진 장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대정 위임을 반납하였고, 이후 메이지유신이 발생하면서 천황이 정권을 되찾게 된다.

다음으로, 유학은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유학의 중심 개념인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직역해보면 성씨를 바꾸고 천명을 바꾼다는 뜻이다. 즉, 유학해서 이는 부도덕한 왕조나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자는 천명에 의거하여 축출되고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 새로운 왕조가 개창된다는 개념이다.<sup>3)</sup> 따라서 19세기 중후반 일본 상황은 유학적으로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자’가 도쿠가와 요시노부이고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가 천황인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일본은 고대국가가 성립된 이래 왕조교체, 즉 혁명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국가이며 이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바로 여기에서 모순점이 생겼다. 유학의 중심 개념 중 하나인 ‘역성혁명’과 천황은 혈통이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는 일본의 전통적 군주라는 견해인 ‘만세일계’가 사상적으로 충돌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혁명이 아닌, 유신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메이지유신을 합리화했다. 반체제가 아니라 체제 내 개혁이라는 것이다.<sup>4)</sup> 유학사상을 배반하지 않음과 동시에 만세일계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메이지유신 이후 천황을 절대적인 존재로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크게 중요시되었다.<sup>5)</sup>

이러한 유학의 정치적, 사상적 기반 위에서 메이지유신은 결과적으로 성공하였고, 일본은 약 700년 간의 군사정권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근세에서 근대로의 변혁을 맞게 되었다.

1) 참고: 위키백과. “대정위임론”. <https://ko.wikipedia.org/wiki/대정위임론> (2020.05.06.)

2) 참고: 위키백과. “메이지 유신”. [https://ko.wikipedia.org/wiki/메이지\\_유신](https://ko.wikipedia.org/wiki/메이지_유신) (2020.05.06.)

3) 참고: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역성혁명”. (2020.05.06.)

[http://contents.history.go.kr/front/tg/view.do?treeId=0201&levelId=tg\\_003\\_1300&ganada=&pageUnit=10](http://contents.history.go.kr/front/tg/view.do?treeId=0201&levelId=tg_003_1300&ganada=&pageUnit=10)

4) 참고: 박훈. (2018.02.04.). “[역사와 현실]메이지유신과 386의 유신”.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214183201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2141832015) (2020.05.06.)

5) 참고: 위키백과 “만세일계” <https://ko.wikipedia.org/wiki/만세일계> (2020.05.06.)